

Week 1 제4강

Exercise 1 확률론적 범주화와 박쥐의 예외성

In the probabilistic view, the typical exemplars or category members are recognized more quickly because they share more features with other category members.

In a sense, the typical category member is closer to the centre of the category.

And a similar effect might be observed with the exceptional category members.

A very atypical member of a category (like bats as atypical mammals, or even as atypical birds if your category for "bird" is based on observable features) is really an outlier.

It really is the case that the bat is a lousy member of the mammal category.

It looks like a bird, acts like a bird, and cannot see very well.

A probabilistic categorization system would assume that bats will be misclassified and will present people with some difficulty.

It is plausible that our own inability to classify them readily corresponds to the fact that bats are often feared.

Perhaps we fear bats because they do not fit into a simple, basic category very easily.

확률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형적인 예나 범주 구성원은 다른 범주 구성원들과 더 많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인식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범주 구성원이 범주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범주 구성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효과가 관찰될 수도 있다.

어느 범주의 매우 비전형적인 구성원(예컨대 비전형적인 포유류로서의 박쥐, 혹은 '조류'에 대한 범주가 관찰될 수 있는 특징에 기초하는 경우 비전형적인 조류로서의 박쥐)은 사실상 아웃라이어(관측된 데이터의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

박쥐가 포유류 범주의 형편없는 구성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박쥐는 조류처럼 생겼고, 조류처럼 행동하며, 시력이 좋지 않다.

확률론적 분류 체계는 박쥐가 으레 잘못 분류되어 사람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우리가 박쥐를 쉽게 분류하지 못하는 것이 박쥐가 흔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범주에 쉽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Exercise 2 공감과 진정성의 리더십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is the critical linkage between empathy and authenticity. While leaders may act on the premise that sensitivity to employee concerns is helpful in achieving organizational goals, brilliant leaders believe that empathy has value in its own right. In this regard, empathy is less a means to an end (e.g., profiting) but rather is consistent with Kant's notion of "Character," which underscores truthfulness as a core element of virtue.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particularly employees, brilliant leaders would be seen as behaving in ways that reveal a genuineness of motives. Guided by the deontologically-based philosophical guidepost, "We should do our duty for no other reason than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the brilliant leader's empathetic conduct is derived less from strategic or tactical interests than it is from one's personal sense of integrity. That, then, is a defining feature of authenticity: it frames empathy as values-driven rather than outcome-driven.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공감과 진정성 사이의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리더들은 직원들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행동할 수 있지만, 훌륭한 리더는 공감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감은 어떤 목적(예컨대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인격'이라는 칸트의 개념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진실성을 미덕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이해관계자, 특히 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리더는 동기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론에 근거한 철학적 지침에 따라,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은 전략적이거나 전술적인 이익보다는 진실성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성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그것(진정성)은 공감을 결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규정한다.

Exercise 3 언어와 감정의 구성 방식

Language is socially constructed; over time our cultural collectives agreed upon various abstract symbols and sounds to represent objects, people, places, and experiences.

Conversely, basic emotions are biologically constructed; over time evolution repeatedly crafted responses to important life situations – which we later associated with symbols, words, and phrases.

The presence of a unique emotion word in one culture does not imply the presence of unique circuitry or unique phenomenology for a special emotion found only in that culture.

Similarly, the absence of a specific basic emotion word in one culture does not imply the absence of analogous basic emotion circuitry.

Emotions and language are parallel processes that can inform and provide context about one another, but ultimately cannot guarantee the existence of one another.

An example of this is in Robert Levy's pioneering work in Tahiti, where he found that Tahitians had no words for "grief" and "sadness."

Nevertheless, they experienced a "sick, strange" feeling when processing the loss of a loved one.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문화 공동체는 사물, 사람, 장소 및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추상적인 기호와 소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가 중요한 삶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기호, 단어 및 구절과 관련지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화에서 독특한 감정 단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문화에만 발견되는 특별한 감정을 위한 고유한 신경 회로나 고유한 현상학(주관적 감정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화에 특정 기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유사한 기본 감정 신경 회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감정과 언어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결국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Robert Levy가 타히티에서 한 선구적인 연구에 있는데, 거기서 그는 타히티인들이 '비탄'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프고, 이상한' 감정을 경험했다.

Exercise 4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식

There are some pretty big lifestyle changes you can choose to make if you want to help the planet.

For instance, you could follow a plant-based diet, or you could pledge to go zero-waste.

If you're surrounded by people who are making these drastic changes, you might feel pressured into following suit: you might feel that if you don't make these changes, your efforts to save the planet are inadequate.

Despite what you might hear, a plant-based diet or zero-waste living is not necessarily an all-or-nothing venture.

Reducing your meat and dairy intake a little is better than not doing so at all: buying fruit, veg and grains loose when you can is better than always buying them wrapped in plastic.

The fact is, you don't have to follow a vegan or a zero-waste lifestyle perfectly to make a difference. Making little changes where you can and how you can is what truly counts.

지구를 돕고 싶다면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꽤 큰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면, 따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즉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지구를 구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과는 달리, 식물성 식단이나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 모험적 시도는 아니다.

고기와 유제품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전혀 줄이지 않는 것보다 낫고, 가능하다면 과일, 채소, 곡물을 포장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이 항상 비닐에 포장된 것을 사는 것보다 낫다.

사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비건이나 제로 웨이스트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Exercise 5 한계 효용과 스포츠 소비의 예외

When income rises,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

When income falls, so will demand.

However, if your income doubles, you would not always buy twice as much of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For example, there are only so many tubs of ice cream you would want to eat, no matter how wealthy you are.

This is an example of "marginal utility."

Marginal utility is the concept that each unit of a good or service is a little less useful to you than the first.

At some point, you will not want it anymore, and the marginal utility drops to zero.

We can see that professional team sports contradict this assumption.

Fans (consumers) often want more games to watch.

We have seen this example play out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sport matches on live television increasing and through the advents of new competitions or formats of the game (e.g., Twenty20 cricket) or expansions of league reforms to fit in additional fixtures (e.g., UEFA Champions League reforms for 2024).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항상 두 배만큼 많은 양의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먹고 싶어 하는 아이스크림 통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의 예이다.

한계 효용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각 단위가 처음 단위보다 조금씩 덜 유용하다는 개념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한계 효용은 0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프로 팀 스포츠가 이 가정에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팬(소비자)들은 관람할 수 있는 더 많은 경기를 원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TV로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새로운 대회나 경기 방식의 출현(예: Twenty20 cricket)이나 추가 경기를 편성하기 위한 리그 개편의 확대(예컨대 2024년 UEFA 챔피언스리그 개편)를 통해, 이것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Exercise 6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 저항 운동

Among the attempts to resist fast fashion are consumer movements to make more informed, ethical decisions as they purchase, use, and repair their clothing.

The "slow fashion" movement, for example, encourages buying fewer clothes of higher quality and wearing them longer, purchasing clothes produced (or at least sold) locally, and thinking critically about the labor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urrounding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ome consumers have become more active in producing (sewing or knitting) and repairing their own clothing.

The design historian Fiona Hackney refers to the "quiet activism" of everyday making.

She argues for "the emergence of a new, historically conscious, socially engaged amateur practice."

This practice represents a return to the intimate connection of production (making) with consumption (use, wear) before the industrialization of fibers, textiles, and apparel. Industrialization changed the production-consumption dynamic in at least two ways: Factory-made, store-bought clothes were more detached from consumer-made ones, and they also tended to be less expensive.

Prior to industrialization, only wealthy people could afford a closet of many garments.

Among working-class people, formal clothes were often prized possessions that were included in wills.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려는 시도 중에는 옷을 구매, 사용, 수선할 때 정보에 더 기반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소비자 운동이 있다.

예를 들어, '슬로우 패션' 운동은 더 적은 숫자의 좋은 품질의 옷을 구매하고 오래 입을 것, 지역에서 생산된 (아니면 적어도 판매된) 옷을 구매할 것, 그리고 생산과 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및 환경 조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것을 장려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의 옷을 만들고(바느질하거나 뜨개질하고) 수선하는 데 더 적극적이 되었다.

디자인 사학자 Fiona Hackney는 일상적인 제작 활동의 '조용한 행동주의(quiet activism)'를 언급한다.

그녀는 '역사를 의식하며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마추어적 실천의 출현'에 대한 찬성론을 편다.

이러한 실천은 섬유, 직물 및 의류의 산업화 이전에 존재했던, 생산(만들기)과 소비(사용, 착용)의 밀접한 연결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산업화는 생산과 소비의 역학 관계를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켰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가게에서 구입된 옷은 소비자가 직접 만든 옷과 더욱 분리되었으며, 가격도 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많은 옷을 보관한 옷장을 가질 여유가 있었다.

노동자 계층 사람들에게 격식을 갖춘 의복은 많은 경우 유언장에 포함되는 소중한 소유물이었다.

Exercise 7 의사소통 의도와 무관한 자연적 의미

Grice, a British philosopher of language, proposed that, in addition to communicative meaning, there is another kind of meaning, which he referred to as natural meaning, characterized by 'things' that have meaning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ny communicative intention on anyone's part.

For example, I have learned that dynamite means danger.

Thus, if I find a box of dynamite in my garage, dynamite is/means danger to me and I am going to be frightened.

To recognize the danger, it is not necessary for me to recognize that someone intentionally placed the dynamite ther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e to recognize that dynamite is dangerous; that is, it is not necessary that I recognize any communicative intention behind the box being there to recognize danger.

And, further, even if the dynamite had been put ther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e to recognize I was in danger, it would not be necessary for me to recognize that in order to feel in danger.

Simply put, the word 'dynamite' on a box means danger whether or not anyone intended to have me recognize that meaning.

영국의 언어 철학자 Grice는, 의사소통적인 의미와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를 가지는 '사물'이라는 특징을 가진 다른 종류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는 그것을 '자연적 의미'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나는 다이너마이트가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차고에서 다이너마이트 한 상자를 발견한다면, 다이너마이트는 나에게 위험이거나 위험을 의미하며 나는 겁을 먹을 것이다.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 나는 다이너마이트가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도록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놓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없는데, 즉,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상자가 거기 있다는 것 뒤에 숨어 있는 의사소통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다이너마이트가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위험 속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것을 인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자에 쓰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의미를 인지하게 하고자 의도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을 의미한다.

Exercise 8 과학 발전이 인간 복지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

Scientific progress is measured not only by an increase in understanding but by an increase in control over nature and redirection of nature's course.

"The contemplative ideal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for their own sake has been replaced in modern times," Wieland comments, "by the practical ideal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service of humanity." The natural course of things once presented and still presents threats to human welfare: people went and still go hungry, die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nd face natural disasters. But not all control and redirection add to human welfare.

Medical technology, based on science, has lengthened the number of years human beings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condemning them to lonely, bedridden existences.

End-of-life treatments, which prove medical innovation and competence, can sustain life, but not living.

The illustrious medical journal The Lancet reports frequently on the "sea of suffering" in aging populations.

과학적 진보는 이해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통제와 자연적 흐름의 방향 전환의 증가에 의해서도 측정된다.

Wieland는 "그 자체를 위한 과학적 탐구의 관조적 이상은 현대에 와서 인류를 위한 과학 연구의 실용적 이상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논평한다.

만물의 자연적인 흐름은 한때 인간의 복지에 위협을 가했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어, 사람들은 굶주렸고 지금도 굶주리며, 유아기와 이른 성인기에 죽으며, 자연재해에 직면한다.

그러나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 기반한 의료 기술은 인간이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햇수를 늘려 왔으며, 그들을 고독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는 존재로 운명지어 왔다.

연명 치료는 의학적 혁신과 역량을 입증하지만, 생명을 지속시킬 수는 있어도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다.

저명한 의학 저널인 The Lancet은 고령화 인구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바다'에 대해 자주 보도한다.

Exercise 9 야생 동물 행동 연구를 통한 동물 복지 향상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what animals want to do, a knowledge of the natural or normal behavioural repertoire of a species is a vital step in understanding what is good for their welfare. It draws our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wild and captive members of that species and therefore makes us aware of the possible behaviours that the captive ones might want to do.

It does not say that they will necessarily want to do them just because they are natural but it provides obvious candidates to be tested.

The fact that the jungle fowl ancestors of our domestic chickens always roost in trees at night, for example, highlights the possible importance of roosting to modern breeds.

It does not tell us that all modern chickens still definitely want to roost, but it provides a very plausible hypothesis that this might be important to them.

Such a hypothesis can then be tested by investigating whether modern chickens still want to roost (they do).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 그들의 복지에 좋은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 지식으로써 우리는 그 종의 야생 개체와 사육 개체 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사육 개체들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가능한 행동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지식은 그런 행동이 단지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사육 개체들이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나, 검증해 볼 수 있는 분명한 후보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닭의 조상인 야생 닭이 밤에 항상 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은 현대 품종에게도 햇대에서 자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현대의 닭이 여전히 반드시 햇대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그 사실은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매우 그럴듯한 가설을 제공한다.

그러한 가설은 이후 현대의 닭이 여전히 햇대에서 자고 싶어 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검증해 볼 수 있다(실제로 원한다).

Exercise 10 선거 제도의 유형

Inevitably, the world of electoral systems is crowded and complex and becoming more so all the time: one country's electoral system is never the same as another's (although in some cases the differences are quite small).

Given the range of variations among the different electoral systems, this makes life quite difficult for the analyst seeking to produce an acceptable typology.

One option might be to simply base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s in terms of their outputs, that is, with reference to the process of translating votes into seats where one distinguishes between those systems which have 'proportional' outcomes and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s.

The essence of proportional systems is to ensure that the number of seats each party wins reflects as closely as possible the number of votes it has received.

In non-proportional systems, by contrast, greater importance is attached to ensuring that one party has a clear majority of seats over its competitors, thereby (hopefully) increasing the prospect of a strong and stable government.

필연적으로 선거 제도의 세계는 혼잡하고 복잡하며, 줄곧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한 나라의 선거 제도는 결코 다른 나라의 제도와 같지 않다(물론 몇몇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작을 수도 있기는 하다).

서로 다른 선거 제도 사이에 있는 차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유형 분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분석가를 상당히 힘들게 한다.

한 가지 선택지는 단순히 그 '산출물'의 면에서, 즉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그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비례적인' 결과를 내는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는 제도를 구별하게 된다.

비례 제도의 본질은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가 받은 득표수를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비례적이지 않은 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경쟁 정당들에 비해 명확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하여 (잘만 되면)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장하는 데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된다.

Exercise 11 멜로디의 정의와 특성

Melodies are defined not by the absolute value of each pitch, but by the pattern or relation of successive pitches across time; most people have no trouble recognizing a melody that is played in a higher or lower key than they've heard it in before.

In fact, many melodies do not have a "correct" starting pitch; they just float freely in space, starting anywhere.

"Happy Birthday" is an example of this.

One way to think about a melody, then, is as an abstract prototype that is derived from specific combinations of key, tempo, instrumentation, and so on.

A cognitive psychologist would say that a melody is an auditory object that maintains its identity in spite of transformations, just as a chair maintains its identity when you move it to the other room, turn it upside down, or paint it red.

So, for example, if you hear a song played louder than you are accustomed to, you still identify it as the same song.

The same holds for changes in the absolute pitch values of the song, which can be changed so long as the relative distances between them remain the same.

멜로디는 각 음높이의 절대적인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친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 조로 연주되는 멜로디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상 많은 멜로디에는 '올바른' 시작 음높이가 없으며, 그래서 그것들은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그저 떠다니다가 어디서나 시작된다.

'생일 축하 노래'가 이것의 예이다.

그렇다면, 멜로디를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음조, 템포, 악기 구성 등의 특정한 조합에서 끌어낸 '추상적인 원형'으로서이다.

인지 심리학자는 마치 의자가 다른 방으로 옮겨지거나, 거꾸로 뒤집히거나, 빨간색으로 칠해져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멜로디란 변형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청각적 대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익숙한 것보다 더 크게 연주되는 노래를 듣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같은 노래로 인식하는 것이다.

같은 현상이 노래의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적용되는데, 그 음높이는 그것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바뀔 수 있다.

Exercise 12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

The Dutch news site De Correspondent was born with the idea of incorporating active readers from the start.

Jay Rosen, the NYU professor who became an adviser to the organisation, explained how the journalists were expected to have a radically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reader than in traditional media.

'Expectations are that writers will continuously share what they are working on with the people who follow them and read their stuff.

They will pose questions and post call-outs as they launch new projects: what they want to find out, the expertise they are going to need to do this right, any sort of help they want from readers.

Sometimes readers are the project.

Writers also manage the discussion threads which are not called comments but contributions – in order to highlight the best additions and pull useful material into the next version of an ongoing story.'

Some of these crowdsourcing techniques have been used by journalists on more mainstream papers, notably David Fahrenthold of the Washington Post.

네덜란드의 뉴스 사이트 De Correspondent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독자를 포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탄생했다.

이 조직의 고문이 된 뉴욕대학교 교수 Jay Rosen은 기자들이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독자들과 관계를 맺도록 기대되는지를 설명했다.

"기자들은 자신이 작업 중인 내용을 자신을 팔로우하고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들이 알아내고 싶은 것,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게 될 전문 지식, 독자들로부터 원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독자가 곧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기자들은 또한 댓글이 아니라 '기여'라고 불리는 토론 스레드를 관리하는데, 가장 훌륭한 추가 의견을 부각시키고 진행 중인 기사의 다음 버전에 유용한 자료를 끌어 넣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기법들 가운데 일부는 더 많은 주류 신문사의 기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는데, 특히 Washington Post의 David Fahrenthold가 그렇다.